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수아¹⁾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데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2014) 조사에 참여한 만 5세 유아 1,432명(남 736, 여 696명)의 부모의 응답 데이터를 SPSS와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양육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모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양육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들 관계에 대해 공동양육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증진을 위해 부부관계 개선 및 공동양육에 접근한 구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공동양육, 사회적 유능감, 매개효과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최초로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인간으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1)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특수신분교수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학습하고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갓 태어난 인간에게 가장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는 부모이다. 생애 초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인적, 물적 양육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이후 사회 적응력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현주, 2018).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 점차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를 벗어나 점점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 내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성영실·이성주, 2021).

이처럼 생애 초기 발달단계인 영유아기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존재로 성장 및 발달해나가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그들이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부모와 또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능력을 일컫는다(Raver & Zigler, 1997). Webster-Stratton과 Lindsay(1999)도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 갈등 조절 기술 등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유능감을 갖춘 유아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정서조절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긍정적 상호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이태영·강문희, 2001). 무엇보다 생애 초기 영유아의 발달에 유의미한 대인관계는 부모이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 가운데 부모 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과 관련하여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만족도(이경희·김영희·신성일, 2012), 부부갈등(박새롬·노보람·박해준 외, 2017; 조인주, 2020), 양육 태도 및 양육 행동(박남심·송승민·엄희경, 2020; 옥경희, 2019; 최윤희·문혁준, 2018; 한혜림, 2021), 양육 스트레스(최우수·성영실, 2021; 홍혜진·김경숙, 2020), 부모-자녀 상호작용(정영미, 2021; 조은호·김현경, 2019; 최은정, 2020), 공동양육 및 부의 양육 참여(노연수, 2015; 방해순·이현주, 2021; 유지연, 2019; 이진숙, 2013) 등이 보고된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자기 계발 및 사회 진출의 증가, 부의 자녀 양육 참여증가로 인해 부모 또는 가족 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Lamb,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감이 부모로서 역할 수행은 물론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김정미·최선녀·문영경, 2016; 채영문·곽수진, 2017; Belsky, 1990)를 고려해볼 때, 특히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공동양육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선행연구들(노연수, 2015;

박남심·송승민·엄희경, 2020; 우정희·이미숙·전춘애, 2003; 이경희·김영희·신성일, 2012; 한혜림, 2021)은 주로 부 또는 모가 인식한 응답만을 분석하였고, 부모 두 변인의 영향을 동시에 검증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송민영(2018)과 이영진, 김미래와 이은형(2018)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이 자녀 양육에 있어 서로 보완적이므로 부와 모의 변인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 제기를 시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인 행복과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개념이다(노성향, 2018).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McCollum와 Ostrosky(2008)는 가정 내 정서적인 분위기나 성별, 나이, 심리적인 건강과 같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변인 더불어 부모의 결혼만족도 역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희, 김영희와 신성일(2012)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에 있어서 결혼만족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유아의 사회성 및 사회적 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어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으나(구애숙, 2004; 우정희·이미숙·전춘애, 2003; 한영숙, 2020),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바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겠다.

한편 부부갈등은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부가 결혼 이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사고방식, 신념, 습관, 흥미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Sanford, 2010). 그러나 부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부부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미정 2015; 윤해옥·최효식, 2016; 임형아, 2004; 최성희, 2021). Kouros, Cummings, Davies(2010)의 연구에서도 생애 초기 가정 내에서 부부갈등을 경험한 유아들이 성장하여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종단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조인주(2020)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즉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인임

을 예측할 수 있으나 부부갈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부의 양육 역할 비중의 증가이다(박은숙, 2015; 채지현, 2010; Lamb 2010).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부부의 공동양육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나현정, 2017). 공동양육이란, 부부가 함께 육아 분담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자녀의 양육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갖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Laxman, Jessee, Mangelsdorf et al., 2013). 이러한 부모의 공동양육이 유아의 협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유지연, 2019; 한영숙, 2019; Scrimgeour, Blandon, Stifter et al., 2013; Song & Volling, 2015). 최근 방해순과 이현주(2021)에 따르면, 부가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인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즉 유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협조적이고 온정적인 공동양육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과 상호작용방식을 모델링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그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떠한 역할을 이행하느냐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부의 공동양육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더욱 분명한 연구결과를 위해 유아 요인, 부모 요인, 가구 요인을 통제 변인으로 고려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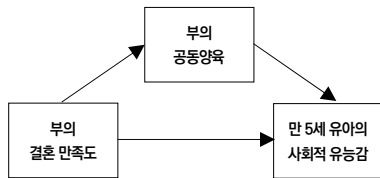
1-1. 부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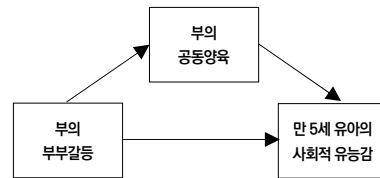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모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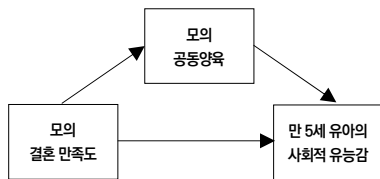
2-2. 모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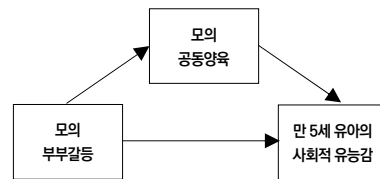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1



[그림 2] 연구모형 1-2



[그림 3] 연구모형 2-1



[그림 4] 연구모형 2-2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2014)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만 5세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736명(51.4%), 여아가 696명(48.6%)이었다.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921명(64.3%)으로 가장 높았으며, 600만원 이상이 298명(20.8%), 300만원 미만인 213명

(14.9%)으로 나타났다. 부의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757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645명(45.0%)이 그 뒤를 이었다. 모의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82명(75.6%)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14명(2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605명(42.2%), 고등학교 졸업 383명(26.7%), 전문대학교 졸업 290명(20.3%), 대학원 졸업 149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38명(37.6%), 고등학교 졸업 41명(29.0%), 전문대학교 졸업 396명(27.7%), 대학원 졸업 80명(5.6%)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 및 상태는 미취업 미학업이 784명(54.7%)으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 중(휴직 포함) 585명(40.9%), 취업 학업 병행 중 36명(2.5%), 학업 중(휴학 포함) 8명(0.6%)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인: 결혼만족도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ung(2004)이 우리나라 실정 및 문화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RKMSS(Revised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이며,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만족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4점)’ 순으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 신뢰도 Cronbach α 는 부 (.927), 모 (.925)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인: 부부갈등

부모의 부부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현숙(2004)의 연구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 2001)의 연구를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이며,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순으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 신뢰도 Cronbach α 는 부 (.913), 모 (.921)로 나타났다.

다. 매개변인: 공동양육

부모의 공동양육을 알아보기 위하여 McHale(1997)의 연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실사에 반영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통합(7 문항), 갈등(2문항), 비난(3문항), 훈육(4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이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중 문항 신뢰도가 낮은 '비난(부 .326, 모 .409)'과 '훈육(부 .110, 모 .089)'을 제외하고, '가족통합(부 .870, 모 .843)'과 '갈등(부 .774, 모 .757)'을 사용하였다. 가족통합은 긍정적인 공동양육을 의미하며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에게 배우자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나는 배우자 없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말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갈등은 부정적인 공동양육을 의미하며 "나는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배우자와 언쟁(말싸움)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 순으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통합 수준이 높고 갈등이 적은 것으로 코딩한 결과, 부부가 지각하는 공동양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 신뢰도 Cronbach α 는 부 (.851), 모 (.828)로 나타났다.

라. 종속변인: 사회적 유능감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Gresham과 Elliott(1990)의 연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평정용과 부모평정용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평정용(총 32문항, 4개 하위영역)을 사용하였다. 4개 하위영역은 주장성(11문항), 자기통제(7문항), 협력성(6문항), 책임성(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장성은 "집단 모임에서 자신감을 보인다.", "집단 활동에 참여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협력성은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집안일을 한다.",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방을 청소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자기통제는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지킨다.", "부모의 지시에 귀를 기울인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책임성은 "부모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느낌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나타낸다." 등의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3점)' 순으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지각하는 만 5세 유아의 사회

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 신뢰도 Cronbach α 는 .926으로 나타났다.

마.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김수정, 2019; 백지숙·권은주, 2018)에 근거하여 유아, 부모, 가구 요인 등을 사용하였다. 유아 요인은 성별로 남아는 0, 여아는 1로, 부모 요인은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 여부로 취업 및 학업 중이 아닌 경우는 0, 취업 및 학업인 경우는 1로 포함하였고, 가구 요인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사이의 관계, 부모의 부부갈등과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사이의 관계와 이 관계에 미치는 공동양육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의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는 공동양육과 정적 상관관계($r = .528, p < .001$),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 상관관계($r = .195, p < .001$)가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은 공동양육과 부적 상관관계($r = -.570, p < .001$), 사회적 유능감과 부적 상관관계($r = -.171, p < .001$)가 있었다. 부의 공동양육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 상관관계($r = .214, p < .001$)가 있었다.

〈표 1〉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432)

	1	2	3	4	5	6	7	8	9	10
1 유아 성별	1									
2 모 취업 및 학업 여부	-.004	1								
3 가구 소득 [월 평균 (만원)]	-.036	.004	1							
4 (부) 결혼만족도	.012	-.032	.036	1						
5 (부) 부부갈등	.020	.017	-.033	-.622***	1					
6 (모) 결혼만족도	.016	-.022	.031	.483***	-.501***	1				
7 (모) 부부갈등	-.015	.015	-.033	-.502***	.639***	-.689***	1			
8 (부) 공동양육	.017	.011	.048	.528***	-.570***	.432***	-.480***	1		
9 (모) 공동양육	-.009	.041	-.011	.245***	-.196***	.376***	-.246***	.312***	1	
10 사회적 유능감	.112**	.013	-.020	.195***	-.171***	.197***	-.212***	.214***	.284***	1
	<i>M(SD)</i>			3465(553)	2102(755)	3230(629)	2109(828)	5123(905)	4816(660)	2306(303)
	왜도			-.840	.511	-.704	.721	-.158	-.381	-.118
	첨도			.628	-.074	.675	.234	-.081	.504	-.369

주: 1. 유아 성별(남아=0, 여아=1)

2. 모 취업 및 학업 여부(미취업 및 미학업=0, 취업 및 학업 중=1)

*** $p < .001$.

다음으로, 모의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는 공동양육과 정적 상관관계($r = .376, p < .001$),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 상관관계($r = .197, p < .001$)가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은 공동양육과 부적 상관관계($r = -.246, p < .001$), 사회적 유능감과 부적 상관관계($r = -.212, p < .001$)가 있었다. 모의 공동양육은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 상관관계($r = .284, p < .001$)가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840 ~ .721)와 첨도(-.369 ~ .675)는 왜도가 |3| 미만, 첨도가 |10| 미만으로 검증되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Kline, 2011).

2.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가. 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1) 부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먼저 부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의 결혼만족도는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865, t = 23.438, p < .001$),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B = .062, t = 3.722, p < .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양육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051, t = 4.998, p < .001$)으로 나타났다.

부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방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총효과($B = .106, CI(.078, .134)$), 직접효과($B = .062, CI(.029, .094)$), 간접효과($B = .044, CI(.027, .06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부의 결혼만족도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양육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부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 = 1,432$)

Path	$B(\beta)$	se	t	95%CI		R	R^2	F
				LLCI	ULCI			
(유아 성별)	.250(.014)	.041	.610	-.055	.105			
(모의 취업 및 학업상태)	→ 공동	.049(.270)	.041	1.191	-.032	.130	.532	.283138.743***
(가구 소득)	→ 양육	.000(.030)	.000	1.289	.000	.000		
결혼만족도		.865(.530)	.037	23.438***	.793	.937		
(유아 성별)		.066(.109)	.016	4.223***	.035	.097		
(모의 취업 및 학업상태)	→ 사회적	.009(.015)	.016	.596	-.022	.043	.235	.055 41.630***
(가구 소득)	→ 유능감	.000(-.028)	.000	-1.086	.000	.000		
결혼만족도		.062(.113)	.017	3.722***	.029	.095		
공동양육		.051(.152)	.010	4.998***	.032	.071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106, CI[.078, .134], 7.450***	.062, CI[.029, .094], 3.722***						.044, CI[.027, .062]	

*** $p < .001$.

2) 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부의 부부갈등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 = -.682$, $t = -25.941$, $p < .001$),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B = -.031$, $t = -2.482$, $p < .0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양육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056$, $t = 5.330$, $p < .001$)으로 나타났다.

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방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총효과($B = -.070$, $CI[-.090, -.049]$), 직접효과($B = -.031$, $CI[-.056, -.007]$), 간접효과($B = -.038$, $CI[-.053, -.02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부의 부부갈등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양육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부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 = 1,432)

Path		B(β)	se	t	95%CI		R	R ²	F
					LLCI	ULCI			
(유아 성별)		.055(.030)	.040	1.379	-.023	.133			
(모의 취업 및 학업상태)	→ 공동양육	.037(.021)	.040	.937	-.041	.116	.576	.326	169.723***
(가구 소득)		.000(.030)	.000	1.374	.000	.000			
부부갈등		-.682(-.569)	.026	-25.941***	-.734	-.631			
(유아 성별)		.068(.111)	.016	4.306***	.037	.098			
(모의 취업 및 학업상태)	→ 사회적 유능감	.008(.013)	.016	.505	-.023	.039	.250	.063	18.729***
(가구 소득)		.000(-.027)	.000	-1.050	.000	.000			
부부갈등		-.031(-.078)	.013	-2.482*	-.056	-.007			
공동양육		.056(.168)	.011	5.330***	.036	.077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070, CI[-.090, -.049], -6.642***	-.031, CI[-.056, -.007], -2.482*			-.038, CI[-.053, -.024]					

*** p < .001.

나. 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1) 모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모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모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 = 1,432$)

Path	$B(\beta)$	se	t	95%CI		R	R^2	F
				LLCI	ULCI			
(유아 성별)	-.017(-.012)	.034	-4.93	-.082	.049			
(모의 취업 및 학업상태)	.063(.047)	.034	1.883	-.003	.129			
(가구 소득)	.000(-.024)	.000	-.955	.000	.000	.377	.141	58.177***
결혼만족도	.403(.375)	.027	15.169***	.351	.455			
(유아 성별)	.069(.113)	.015	4.470***	.039	.099			
(모의 취업 및 학업상태)	.004(.006)	.015	.248	-.027	.034			
(가구 소득)	.000(-.017)	.000	-.667	.000	.000	.323	.105	32.776***
결혼만족도	.050(.104)	.013	3.805***	.024	.076			
공동양육	.111(.247)	.012	9.069***	.087	.135			
Total effect	.095, CI[.070, .119], 7.558***							
Direct effect	.050, CI[.024, .076], 3.805***							
Indirect effect	.045, CI[.033, .057]							

*** $p < .001$.

모의 결혼만족도는 공동양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403$, $t = 15.169$, $p < .001$),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B = .050$, $t = 3.805$, $p < .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양육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111$, $t = 9.069$, $p < .001$)으로 나타났다. 모의 결혼만족도가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방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총효과($B = .095$, CI [.070, .119]), 직접효과($B = .050$, CI [.024, .076]), 간접효과($B = .045$, CI [.033, .05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모의 결혼만족도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양육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모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모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모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N = 1,432)

Path	<i>B</i> (β)	<i>se</i>	<i>t</i>	95%CI		<i>R</i>	<i>R</i> ²	<i>F</i>
				LLCI	ULCI			
(유아 성별)	-.012(-.009)	.035	-.346	-.081	.057			
(모의 취업 및 학업상태)	.057(.042)	.035	1.621	-.012	.126	.247	.061	22.862***
(가구 소득)	.000(-.020)	.000	-.771	.000	.000			
부부갈등	-.199(-.244)	.021	-9.437***	-.241	-.158			
(유아 성별)	.068(.113)	.015	4.482***	.038	.098			
(모의 취업 및 학업상태)	.004(.006)	.015	.250	-.026	.034	.342	.117	37.188***
(가구 소득)	.000(-.019)	.000	-.746	.000	.000			
부부갈등	-.056(-.152)	.010	-5.868***	-.074	-.037			
공동양육	.112(.249)	.012	9.625***	.089	.134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078, CI[-.097, -.159], -8.210***	-.056, CI[-.074, -.037], -5.868***		-.022, CI[-.030, -.016]					

*** *p* < .001.

모의 부부갈등은 공동양육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 = -.199, t = -9.437, p < .001$),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B = -.056, t = -5.868, p < .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양육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112, t = 9.625, p < .001$)으로 나타났다.

모의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방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총효과($B = -.078, CI[-.097, -.159]$), 직접효과($B = -.056, CI[-.074, -.037]$), 간접효과($B = -.022, CI[-.030, -.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모의 부부갈등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동양육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아지며(우정희·이미숙·전춘애, 2003), 부의 지각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윤해옥·최효식, 2016; Labrell, Deleau & Juhel, 2000)와 유사하다. 그리고 부의 부부갈등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유아의 개인 내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유능감을 감소시킨다는 조인주(2020)의 연구결과와 부부갈등이 가족 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감소시킨다는 연구(성영실·이성주, 2021)와 일치한다. 즉 결혼만족도 수준이 낮고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의 결혼만족도와 공동양육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면, 결혼만족도와 공동양육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이경선(2017)의 연구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공동양육을 하였으며, 낮을수록 부정적인 공동양육이 나타난다는 조규영, 김신경과 전효정(2019)의 연구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의 결혼만족도는 가족 통합적인 양육 협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연은모·최효식·홍윤정 외, 2014; 윤미선·김미숙, 2016; Gardner, Qualter & Whiteley, 2011)를 지지한다. 부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이 낮고 해결이 원만할수록 긍정적인 공동양육이 나타나고, 부부갈등의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수록 부정적인 공동양육이 나타난다는 장미연과 최미경(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공동양육이 나타나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공동양육이 나타난다는 연구(김수진·도현심, 2001; 이경선, 2017; 조규영·김신경·전효정, 2019)와 유사한바 부부갈등에 근거한 부부관계의 질이 공동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 지각한 공동양육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가 애정적으로 모와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 배우자를 지지할 경우,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권희경, 2017; 유지연, 2019)와 일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가 지각하는 공동양육이 높을수록 자녀의 또래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책임성 및 협력성 등이 증진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강란혜, 2001; 방해순·이현주, 2021)와도 유사하다.

둘째, 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아와 편안하고 조화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유아의 친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구애숙, 2004; Oliver, Guerin & Coffman, 2009), 유아의 대인 문제 해결사도가 증진된다고 보고한 연구(강현덕, 2004)와 유사하다. 그리고 모의 부부갈등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각하고 이를 높게 인지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지영, 2021; Cummings & Davies, 1994)와 일치한다. 즉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고 부부갈등의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결혼만족도와 공동양육의 관계에서 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서 부를 배제하는 행위를 덜 하거나 부의 육아 방법을 감독·관리하는 태도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적인 공동양육이 나타난다는 연구(최아현, 2020)와 일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만족도는 부모 모두에게 부모의 양육 태도와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신정·김영희, 2007; Belsky, 1984)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모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의 관계에서 모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공동양육이 감소하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공동양육이 증가한다는 전선영과 이희선의 연구(2020)를 지지한다. 이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을 때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김은혜, 2009; 장미연·최미경, 2015; Abidin & Brunner, 1995)와 유사하다.

한편 모가 지각한 공동양육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이는 부부관계 유대감과 공동양육이 서로 밀접한 상관이 있는바 부부관계 유대감이 높은 부부일수록 공동양육에 대한 동등한 책임과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유아의 정서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켰다는 김재원과 남은영(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Lam, Tam과 Chung 외(2018)의 연구는 부부의 공동양육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부모는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와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아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 통합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부부갈등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부부의 원만한 유대관계에 기반을 둔 공동양육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더욱 협조적이고 애정적인 부부관계의 개선 및 향상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가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및 컨설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2014) 자료를 토대로 부모가 인식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공동양육,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였기에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관찰이나 심층 면담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가령 부모의 상호작용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공동양육의 척도에서 가족통합, 비난, 갈등, 훈육 등 4개 하위영역 중 문항 신뢰도가 낮은 비난과 훈육을 제외하고, 가족통합과 갈등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특성에 적합하고, 보다 신뢰도가 유의한 공동양육에 대한 측정 도구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을 중심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2014) 자료를 토대로 만 5세 유아의 단일연령만을 대상으로 하여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기에 만 3세와 만 4세 유아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만 3세와 만4세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패널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공동양육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욱 누적적이고 심층적인 종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적 유능감의 경우 유아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평정한 결과를 사용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부모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부부 변인을 고려하여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결혼만족도를 방해하는 변인, 가령 가정 내 일상적인 대화의 언어 형태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같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정 내 의사소통 부모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즉 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양육에 대해 적극적이고 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부의 부부갈등과 더불어 부정적인 공동양육의 환경에 노출되는 유아일수록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고 그 결과 일관성 있는 양육이 결핍되어 유아의 사회 및 행동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의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가족 전체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해소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관점을 토대로 부모가 서로 더불어 능동적으로 갈등

해결전략을 익히고 모색하도록 조력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이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결혼만족도 및 공동양육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한바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공동양육 지원 워크숍 또는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회성이나 단기성의 프로그램이 아닌,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개선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적절한 상담 또는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건전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질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따라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중앙육아지원센터의 결혼만족도와 공동양육을 고려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시급하되, 모든 부부가 일률적인 활동을 체험하고 숙지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부가 부부관계, 공동양육을 포함하여 가정 내 다양한 문제나 위기를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정 내 부부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유아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유능감 증진을 저해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의 임신 준비 시기부터 부모교육 및 소모임을 통해 배우자와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영향과 긍정적인 부부관계 형성의 중요성, 부부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강관혜(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능력-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1), 189-201.
- 강현덕(2004). 부부의 권력유형, 결혼만족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구애숙(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결혼 만족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희경(2017).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1(1), 83-104.

- 김미정(2015). 아버지의 심리특성, 양육특성과 유아 사회성 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김수정(2019).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2), 73-93.
- 김수진·도현심(2001). 부모-간 양육행동(coparenting)의 관련 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신정·김영희(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은혜(2009). 부부갈등 및 부부공동양육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재원·남은영(2018). 부부관계 유대감, 부부공동양육 및 유아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0(1), 97-116.
- 김정미·최선녀·문영경(2016).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부부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Social Science Review, 35(1), 177-197.
- 나현정(2017). 아버지 양육참여도 수준에 따른 유아의 성역할 개념 및 창의성 차이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9(2), 1-21.
- 노성향(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자존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아버지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부모연구, 10(2), 1-15.
- 노연수(201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박남심·송승민·엄희경(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61-178.
- 박새롬·노보람·박혜준·이순형(2017).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중단 매개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51-79.
- 박은숙(201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박지영(2021). 부부갈등이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방해순·이현주(2021).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의 공동양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과 사회정서발달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2), 89-98.
- 백지숙·권은주(2018).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성영실·이성주(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연구, 23(1), 33-55.
- 송민영(2018).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상호작용,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139-161.
- 연은모·최효식·홍윤정·김정아(2014). 영유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협조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배우자의 취업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0(86), 51-78.
- 옥경희(2019).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 인문사회 21, 10(3), 606-616.
- 우정희·이미숙·전춘애(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41), 12, 91-101.
- 유지연(2019). 아버지의 공동양육 참여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특성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4), 115-138.
- 윤해옥·최효식(2016). 부모의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유아 발달 간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APIM 모형의 적용. 유아교육연구, 36(3), 358-379.
- 이경선(2017).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coparenting) 관련 변인: 결혼생활의 질과 정서적 특성. 유아교육연구, 37(4), 421-434.
- 이경희·김영희·신성일(201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1), 125-152.
- 이영진·김미래·이은형(2018). 부모의 가족상호작용,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45-67.
- 이진숙(2013). 부부조화도 및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이태영·강문희(2001).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21(3), 293-325.
- 임현주(2018). 가족 상호작용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심리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6), 269-291.
- 임형아(2004). 부부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가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미연·최미경(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동양육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5), 567-580.

- 전선영·이희선(2020). 부모의 부부갈등 및 공동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037-1062.
- 정영미(2021).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가족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4), 1105-1116.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조규영·김신경·전효정(2019).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공동양육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0(1), 67-83.
- 조은호·김현경(2019). 유아기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초기 학습 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9-230.
- 조인주(2020).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언택트 시대의 아동학 연구. 한국아동학회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 자료집, 66-67.
- 채영문·곽수진(2017).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1-13.
- 채지현(2010).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 최성희(2021).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유아가 느끼는 불안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최아현(2020).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문지기 역할이 부모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우수·성영실(202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1), 115-133.
- 최윤희·문혁준(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221-228.
- 최은정(2020).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87-207.
- 한영숙(201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공격적·협동적 행동의 종단적 관계: 부모공동양육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2), 75-86.
- 한영숙(2020).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효능감 및 자녀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1-19.
- 한혜림(202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의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30(5), 771-781.

- 홍혜진·김경숙(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9(4), 197-217.
- Abidin, R. R., & Brunner, J. F. (1995). Development of a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31-4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83-96.
- Belsky, J. (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85-903.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ummings, E. M., & Davies, P.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Guilford Press.
- Gardner, K. J., Qualter, P., & Whiteley, H. (2011). Developmental correlates of emotional intelligence: Tempera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hood trauma.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3(2), 75-82.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American Guidance Service.
- Kouros, C. D., Cummings, E. M., & Davies, P. T. (2010). Early trajectories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pre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3), 527-537.
- Labrell, F., Deleau, M., & Juhel, J. (2000). Fathers' and mothers' distancing strategies towards todd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3), 356-361.
- Lam, C. B., Tam, C., Chung, K. K. H., & Li, X. (2018). The link between coparenting cooperation and child social competence: The moderating role of child negative affe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2(5), 692.
- Lamb, M. E. (2010). How do fathers influence children's development? Let me count the ways.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1-26.
- Laxman, D. J., Jessee, A., Mangelsdorf, S. C., Rossmiller-Giesing, W., Brown, G. L., & Schoppe-Sullivan, S. J. (2013). Stability and antecedents of coparenting quality: The role of parent personality and child tempera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6(2), 210-222.

- Markman, H., Stanley, S. L.,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rkman, H., Stanley, S.,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cCollum, J. A., & Ostrosky, M. M. (2008). Family roles in young children's emerging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In W. H. Brown, S. L. Odom & S. R. McConnell(Eds.),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risk, disability, and intervention*(pp. 31-59). Baltimore, MD: Paul H Brooks.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 Oliver, P. H., Guerin, D. W., & Coffman, J. K. (2009). Big five parental personality traits,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 medi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6), 631-636.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 Sanford, K. (2010). Perceived threat and perceived neglect: Couples' underlying concerns during conflict.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288.
- Scrimgeour, M. B., Blandon, A. Y., Stifter, C. A., & Buss, K. A. (2013). Cooperative coparenting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3), 506.
- Song, J. H., & Volling, B. L. (2015). Coparenting and children's temperament predict firstborns' cooperation in the care of an infant sibl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9*(1), 130.
- Webster-Stratton, C., & Lindsay, D. W. (1999). Social competence and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Issues in assess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1), 25-43.

- 논문접수 11월 5일 / 수정본 접수 12월 3일 / 게재 승인 12월 15일
- 교신저자: 김수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특수신분교수,
friendsuah@gmail.com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on Five-Year-Ol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Co-parenting

Kim, Su-A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on five-year-ol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ediated by the mother's role in parenting. The study used research data from the seven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KSC). The study made use of data from 1,432 parents of five-year-old children who answered questionnaires prepared on the basis of research on digital addi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Model 4.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observed that co-parenting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and the five-year-old child's social competence. Seco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o-paren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and the five-year-olds child's social competence was also not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social competence in five-year-old childre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ctively implement, and evaluate programs based on relationship enrichment and co-parenting for couples.

Keywords: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parental co-parenting, soci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